

현대·포스코건설 수주 낭보... 파나마서 3.3조 지하철공사

총 연장 25km 모노레일 건설
입찰평가 결과서 최고점 획득
“글로벌 탑티어 위상 지속 제고”

현대건설이 파나마 신규시장에 첫 진출했다.

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는 28억 11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청 발주 공사로 현대건설(51%·약 1조7000억원)은 포스코건설(29%), 현대엔지니어링(2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 3·4(약 1조 2000억원 규모)와 싱가포르 풍골 스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조감도.

/현대건설

츠센터(약 1900억원 규모), 알제리 복합 화력 발전소(약 6740억원) 수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약 3조8000억원을 쌓았다.

이번 공사는 파나마 시티와 수도 서쪽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모노레일

건설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다.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나마 정부는 메트로 3호선이 완공되면 파나마 시티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급속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18일 공개된 입찰평가 결과에서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유수의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공사로 실질적인 공사비 조달을 위해, 파나마 정부가 발행한 CNO(Certificate No Objection)를 시공사가 매각하는 방식의 금융제안서를 상업 입찰에 포함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유수의 글로벌 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세

계 유수의 경쟁사를 제치고 기술, 상업, 금융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현대건설의 토목사업 부문 경쟁력과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며 “이번 사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본원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주, 수행, 수익으로 이어지는 해외부문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탑티어(Top-Tier)의 위상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00년 브라질 포르토 벨료 복합화력 발전 공사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등 중남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삼성전자 R&D 19.4조 투자 세계서 2위... 1위 美 알파벳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 R&D 투자 기업 현황 분석

삼성전자가 전 세계 연구개발(R&D) 투자 부문 1위 자리를 아쉽게 뺏겨 2위를 차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18년 국내외 1000대 R&D 투자 기업 현황을 분석해 5일 발표했다.

1000대 기업 정보는 KIAT가 발표한 '2019년 1000대 R&D 투자 스코어보

드'를 기준으로 했다. 글로벌 1000대 기업은 유럽연합(EU)이 만든 '2019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148억유로를 투자했다. 183억유로를 투자한 미국 알파벳에는 크게 뒤졌지만, 다른 추격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2016년 4위에서 2017년 1위까지 올라서며 R&D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이노션의 슈퍼볼 광고, 선호도 '톱10' 진입

현대차 2위·기아차 8위 기록
배우 크리스 에반스 등 출연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는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Super Bowl) 2020'에서 공개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광고가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동반 톱10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노션은 세계 최대 광고 대전이라 불리는 슈퍼볼에 10번째 참가하고 있다. 지난 3일(한국시간)에 공개한 현대

차와 기아차 광고는 각각 2위, 8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슈퍼볼 2020 광고 대전에서 전체 브랜드 2위에 오른 60초 분량의 현대차 광고 '스마트 파크(Smaht Pahk)'편은 미국 동부 보스턴을 배경으로 제작한 신형 쏘나타 광고로 유명 배우 크리스 에반스 등이 출연했다.

스마트 파크 편은 미국 광고 평가 기관 에이스 메트릭스가 실시한 슈퍼볼 광고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

/김민지 기자 kmj@

한국IBM, 송기홍 前 대표 신임사장 선임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고객사 디지털 혁신 지원 강화”

한국IBM은 신임 사장으로 송기홍(사진) 전 한국IBM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대표를 선임했다고 5일 발표했다.

송기홍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IBM의 컨설팅 부문인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의 대표를 비롯해,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 모니터 그룹 아시아 지역 대표 등 세계적인 컨설팅 조직을 이끌어 왔으며, 25년 이상 국내외 주요 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및 경영 혁신 프로젝



트를 주도해온 전사 전략, 성장 전략 전문가이다.

그는 2016년 한국IBM에 합류한 후 한국IBM 내 여러 조직을 통합해 국내 유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두 지휘하여 의미 있는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한진 분쟁, 지배구조 개선해 그룹 경쟁력 강화”

한국투자증권

비정상적 정상화 앞당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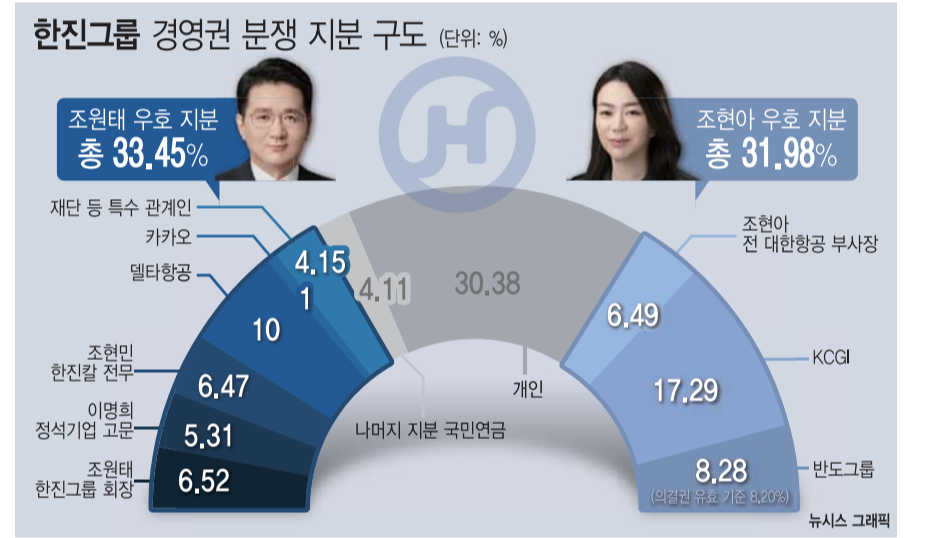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5일 한진그룹의 경영권 경쟁이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그룹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전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反)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확정됐다.

최고운 연구원은 “이 고문과 조 전무가 조 회장에 대해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한진칼 지분 경쟁 구도는 보다 명료해졌다”며 “이제 관건은 기타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연임이 달린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연금 등의 지지를 얻기 위



해 양측 모두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또 단순히 연임 문제뿐 아니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함께 비주력 사업 및 유류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진칼 기업 가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정상화 방안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며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비정상적 정상화를 앞당기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올해 대한항공 공영업이익은 턱아라운드 성공할 전망이다며 목표주가 3만3천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SKC, 2019 영업익 1551억... 전년비 22.9% ↓

1월 인수 완료 KCFT 효과 기대

SKC가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KCFT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C는 지난해 연간 매출 2조5398억원, 영업이익 155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2018년 매출 2조 7678억원, 영업이익 2011억원 대비 각각 8.2%, 22.9%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연간 기준 633억원을 기록해 2018년(1206억원) 대비 47.5%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화학 사업부문에서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인더스트리소재사업부문은 4분기연속 흑자를 내며 매출 1조215억원, 영업이익 338억원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안정과 에코라벨, PLA 필름 등 스페셜

티 제품의 확대와 글로벌 연결 자회사의 실적 개선 등의 결과다. 올해에는 친환경·모빌리티·모바일용 스페셜티 제품 확대, 자회사 SKC 하이테크앤마켓팅과의 통합 마케팅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합작사로 출범하는 화학 사업부문은 매출 7706억원, 영업이익 105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인수를 완료한 KCFT는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3234억원, 62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 67% 상승했다. 주요 고객사들의 동박 수요 증가로 매출이 올랐다. SKC는 올해에 4공장 가동을 본격화하고 추가 증설 투자로 수익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F CCL(연성회로기판)은 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늘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메모리 시장 약세에

작년 웨이퍼 출하량 7% ↓

지난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전년보다 7%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반도체제료장비협회(SEM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리콘 웨이퍼가 전년과 비교해 출하량이 118억 1000만제곱인치였다고 5일 밝혔다.

전년(127억3200만제곱인치)보다 7% 적은 수치다. 출하액으로는 111억 5000만달러로 전년(113억8000만달러)보다 2% 줄었다.

SEMI의 실리콘 제조그룹(SMG)의 의장이자 신에츠 한도타이 아메리카 제품 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담당 이사인 닐 위버는 “2019년 메모리 시장의 약세로 인하여 작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줄어들었지만, 출하액은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